

농어촌공사, 국제 수공학기술 선도 및 교류 확대

✎ 유성훈 | ⓒ 승인 2023.02.23 15:32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23일 3일간 제주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여러 기관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번 컨퍼런스는, 해안 공학 분야 중 시설 안전, 지형 공간 소프트웨어, 정책접근, 방재 및 관광, 가시화 등 5개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파력발전형 다목적 부유식 방파제 흐름해석'이라는 주제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재선 박사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사 연구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국제 물안전심포지움,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 등 국제학회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i-CoAST와 공사는 국제물안전심포지움 및 국제연안과학기술컨퍼런스의 내실화와 외연 확장을 통해 우리나라 수공학분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공사는 i-CoAST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사의 어촌분야 기술 개방과 국내 수공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성훈 obsryu79@obs.co.kr